

# ‘뺑소니’ 피해자 구한 대학생들 ‘의로운 시민’ 표창

전남대생 허윤기·김성민 씨 선정

### 사고 목격 후 신고하고 주변 통제 등 위험 무릅쓰고 ‘광주 정신’ 실천 공로 “사람 생명 최우선...누구라도 했을 일”

전남대 학생 허윤기(22)·김성민(22)씨가 최근 광주 시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다.

허씨와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2시 40분께 북구 용봉동 신안사거리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 한 승용차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배달 업무를 하고 있던 20대 남성을 들이받고는 도주한 것이다.

두 학생은 곧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한 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주변으로 차량이 오지 못하도록 도로를 통제하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지점은 왕복 4차선 도로로, 새벽에도 많은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허씨와 김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위험을 무릅쓰



이윤섭 광주시장이 16일 허윤기(왼쪽), 김성민씨에게 의로운 시민상 표창패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고 ‘광주 정신’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두 번째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됐다.

허씨는 “사명감이 남다른 경찰관인 아버지로부터 사

람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듣고 자란 덕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있을 때 광주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일”이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광주의 많은 청년을 대표해 상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로운 시민상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로움을 실천한 시민을 발굴·표창하는 시책으로, 광주의 의(義)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광주시민 누구나 이웃이나 주변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 추천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쟁사 연구는 평화 유지 위해 꼭 필요”

이성춘 송원대 교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취임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4기 원우인 이성춘(58) 송원대 국방경찰학과 교수가 제 17대 군사편찬연구소장에 19일 취임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 2000년 9월 1일 국내 유일의 군사사 연구편찬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속 최고 군사연구기관이다. 지난 1964년 설립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6·25전쟁 편찬사업 성과를 토대로 군사사 연구 편찬의 기능 강화와 맞물려 몇 차례 기관 개편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신임 이 소장은 광주일고를 졸업했으며 ROTC 24기로 입관, 육군본부·국방부 등 주요 정책부서에서 근무했다. 현역시절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권위있는 ‘참군인대상 총장상’(2004년)을 수상했으며, 동국대 북한학 박사학위 ‘북한 대남 군사협상 모델을 분석한 군사협상분야’ 전문가이다.

예비역 대령인 이 소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육군군사연구·평화학연구·안보전략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소장은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전략’, ‘북한의 보훈정책 고찰과 통일 대비 한국 보훈정책 발전 방안’, ‘6·25전쟁 시 북한군 연대 편성과 해외파 연구’, ‘북한의 통일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등 다

양한 북한 관련 학술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해왔다.

이 소장은 “전쟁을 연구하는 부분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며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애국혼이 살아있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군사연구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경험을 삶의 지혜로 삼고자 했던 선조들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살려 연구소가 세계 속의 군사연구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삼호중공업, 영암서 집 고치기·일손 돕기 봉사활동

현대삼호중공업 봉사단이 회사 인근 농촌 마을을 찾아 집 고치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회사 안전보건부와 공무부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 80여 명이 지난 17일 영암 세호마을을 찾아 농촌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단은 마을 곳곳을 돌며 집수리와 마을 청소, 제조 작업, 고추밭 일손 돕기 등을 했으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장판을 교체하고 대형 TV도 기증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비용은 임직원들이 1%를

모아 만든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의 후원을 통해 마련했다.

봉사단은 이날 세호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가을 대봉감 수확철에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

# 영화 ‘집으로’ 김을분 할머니 별세



영화 ‘집으로’의 김을분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김 할머니의 유가족은 “할머니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하셨다”고 18일 전했다.

김 할머니는 2002년 이정향 감독의 영화 ‘집으로’에서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시골의 외할머니 역으로 당시 8살이던 상우 역의 배우 유승호와 호흡을 맞췄다. /연합뉴스

# 광주경신중,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행사



광주경신중학교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가슴으로 기억할게요, 0416’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회 주도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노란 리본이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신중 제공>

##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제61주년 4.19 혁명 기념식 50 와일드 맵 플러스	00 속아도 꿀꺽(재) 40 지추촌 뉴스	45 손헌주의 간이역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팔도밥상 스페셜 50 불편해도 관철야 55 한국의 인류유산	00 달이 뜨는 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주 별의여신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3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행복설계 알파배기
①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캐시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20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장애인들의 날 특집 드라마 나의 너에게(재)		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00 뉴스브리핑
③	45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 30 TV 유치원		
④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엘리자간다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닥터 365 5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30 속아도 꿀꺽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달이 뜨는 강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⑩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40 아무튼 출근 스페셜	1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나이트라인
⑫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	05 스포츠 매거진 45 모두의 예술	25 앙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5 포텐독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07:15 미니특강대 슈퍼다이너7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30 두다다콩	14:10 EBS 다큐프라임	19:35 자이언트 팽TV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19:50 다크영향 길 위의 인생
08:00 딩동댕 유치원	15:15 클래식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출몰! 슈퍼왕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웰컴 투 아일랜드 -눈이 부시게, 북마리아나 제도>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21:30 한국기행
09:00 뽕뽕뽕 뽕뽕로	16:0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불날엔 트로트지 1부 로미나의 봄이 오는 길>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마사와 노래해요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9일 (음 3월 8일 丁酉) ☎ 010-9790-8237

<p>36년생 <b>술</b>이다 확신한다면 믿어볼여도 된다. 48년생 투명하게 추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60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소기의 결실이 따른다. 72년생 숙단은 금물이나 차분하게 생각 할 일이다. 84년생 대비하는 이만 손실을 최소화 하라. 96년생 애급하여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형상화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18, 71</p>	<p>42년생 겁으로는 뺨뺨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다. 54년생 예를 좇다보면 길사가 중중하리라. 66년생 자발적인 자체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78년생 계획대로 진행해도 무탈 할 것이다. 90년생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띠게 될 것이니 차분히 응대하라. 02년생 조짐이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6, 57</p>
<p>37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49년생 정성에 비례한 결과가 도출 될 것이다. 61년생 힘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다. 73년생 강구한다면 경제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85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97년생 실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9, 68</p>	<p>43년생 원인을 잘 헤아려 보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55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성사 되리라. 67년생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리라. 79년생 방심하다가가는 결정적인 흠결을 남길 수도 있다. 91년생 용이 물을 얻은 격이니 만사형통 하라. 03년생 허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4, 75</p>
<p>38년생 즉흥적이라면 다분히 오판의 소지가 있다. 50년생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함을 명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롭다. 62년생 빨리 분할하고 볼 일이다. 74년생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86년생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98년생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4, 91</p>	<p>32년생 행운을 알리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44년생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백 년 낚다. 56년생 흥과 북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68년생 힘껏 달려보면 결과가 만족할만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80년생 누척 되어 왔던 것이 모양새를 갖추게 되리라. 92년생 돈은 보이나 잘 들지 않아서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49, 60</p>
<p>39년생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귀한 날이로다. 51년생 인과 관계의 핵심적 심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63년생 진행 되어가던 일이 미루어지리라. 75년생 앞길에 구만리 같이 열리기 시작하느니라. 87년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다. 99년생 일처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 16, 67</p>	<p>33년생 부실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45년생 별 것 아니니 놀랄 것까지는 없다. 57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69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알차다. 81년생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겠다. 93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5, 51</p>
<p>40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궁극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52년생 팔이 들이 굽지 내 굽지는 않는 법이다. 64년생 새로운 시도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76년생 계속 유지 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88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00년생 전혀 다른 국면이로다. 행운의 숫자 : 20, 60</p>	<p>34년생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정적이며 편하다. 46년생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허탕을 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하다. 58년생 안심해도 되느니라. 70년생 심신을 안정 시키면서 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가히 집착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94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 지는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15, 90</p>
<p>41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53년생 재반사가 양호하게 시작 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리라. 65년생 오늘의 복잡다단한 현상은 내일의 활성화를 상징하므로 먼 안목으로 보라. 77년생 평탄하고 순조로운 판세이다. 89년생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용이 하도다. 01년생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4, 52</p>	<p>35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 될 수밖에 없다. 47년생 오늘의 일이 근간을 이룰 것이다. 59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겠다. 71년생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진행하면서 흥하리라. 83년생 자신을 낮출수록 귀히 대접 받는 법이다. 95년생 관리와 확인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47, 98</p>